



드루파2012 설명회

드루파2012, 5월 3일부터 13일간 열려

100여사, 40만 방문객 찾는 인쇄업계의 올림픽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회의 한국대표부인 라인메ッセ(주)는 구랍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80여명의 인쇄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드루파2012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라인메ッセ 박정미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독일 기계공업협회 마커스 헤링 회장, 메ッセ 뒤셀도르프의 한스 베르너 라인하트 대표이사의 발표와 질의응답의 순서로 이어졌다.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불경기 불구, 디지털 및 패키지 분야 큰 진전 전망

마커스 헤링 회장(독일기계공업협회 VDMA)

세계 경제 위기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인쇄 시장은 1330억 유로에서 1680억 유로로 팽창했으며, 특히 중국은 두 배 이상 성장한 490억 유로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되었다. 새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융합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하는 등 인쇄물이 인터랙티브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쇄 분야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인쇄는 문서, 서적, 레이블 등의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 건식복사(EF)와 잉크젯 사이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오프셋 인쇄 장점인 비용 및 품질 면에서

의 이점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디지털 인쇄의 탄력성을 결합한다면 지속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어 광고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타겟 그룹에게도 설득력 있는 매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디지털인쇄와 함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포장인쇄분야는 2014년까지 6.6%의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되며 30~40%를 넘나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출판물 인쇄시장은 전자책과 스마트폰의 강세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웹-투-프린트에 따른 온라인인쇄의 진전으로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함부터 전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점은 매력적인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이다.



1. 인사말을 하고있는 라인메세 박정미 대표
2.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고있는 뒤셀도르프의 한스 베르너 라인하르트 대표이사
3.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고있는 독일 기계공업협회 마커스 헤링 회장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쇄 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수년간 인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이들 제품을 떠받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인식도 변화하여 이로 인해 새로운 메가트렌드가 탄생했고 새로운 과제가 생겼으나 인쇄는 인간 사회의 기본 요소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며, 다양한 정보 매체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50개국 23만여 외국 관람객이 찾는 인쇄산업의 축제

한스 베르너 라인하르트 대표이사(메세 뒤셀도르프)

2012드루파의 개막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끝에 이제 인쇄 산업이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하리라는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다. 드루파2012의 개최 시점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며 세계 인쇄산업의 심장으로서 세계 각국 인쇄산업의 현황을 분명히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드루파는 52개국, 1953개 전시사가 17만4000평방미터의 면적에서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여 인쇄 분야에서 세계 최대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면에서도 단연 최고임을 입증했다. 전시사의 64%인 1250개사가 독일 이외의 국가에 참여했으며 전체 관람객의 59%에 달하는 23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전 세계 138개국에서 전시장을 찾았다. 더욱이 78%에 달하는 방문객이 회사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8%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다시 드루파를 찾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드루파의 전시 내용과 이벤트, 각종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스 베르너 라인하르트 대표이사는 “드루파는 내일의 시장을 겨냥한 혁신의 전시장이자,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현실화되는 곳이며 드루파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어디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2드루파 개요

전시사 1800개, 전시 면적 17만 평방미터이며 이미 19개 전시홀은 모두 예약이 완료되었다. 드루파 2012의 전시홀은 전시홀 1, 2에 하이텔베르크, 드룩마쉬넨사와 이 회사의 네트워킹 파트너사인 폴라-모어사, 갈루스사 및 기타 업체들이 입주한다. 전시홀 3은 인쇄 및 관련 자재와 서비스로 레온하르트 쿠르츠, 사쿠라 등이 입주하며 전시홀 6에는 프린트시티, 만로랜드 및 볼렌베르크, 선 케미칼 등이 자리하게 된다. 전시홀 9~12에는 종이 컨버팅 및 포장 재료 제조사들이 바스트, 미쓰비시 페이퍼, 코멕시가 들어간다. 전시홀 12~14에는 후가공 장비업체들인 호리존, 물러 마티니, CP 부르 등이, 전시홀 15~17에는 인쇄기계 및 후가공 장비업체들인 체루티, 페라크, 퀴니히 & 바우어, 퀴르버 페이퍼링크, 콜부스, 빈트필러 & 휠셔 등이 자리 잡게 된다. 지난 2004년 전시회부터 선을 보인 이노베이션 파크는 이번 전시회에도 9개 주제로 구성되어 프린트미디어 산업 및 그 주변에서 진행되는 변화를 다루게 된다.

2012드루파의 표어 “Your link to print”

“Your link to print”는 드루파 2012의 글로벌 인쇄 캠페인의 표어로, “Link”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와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광고든, 온라인 홍보든, 소셜 미디어 활동이든, 인쇄는 여전히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소통 수단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